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6-7월호)



CST, 새로 이전한 캠퍼스에서 첫 졸업식 거행



새로 이전한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CST의 2024년도 졸업식이 열렸다. 화창한 남가주의 아침,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와 고딕 양식의 예배당에서 역사적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오르간 음악이 졸업식의 시작을 알리며, 40여명의 졸업생들과 300여명의 하객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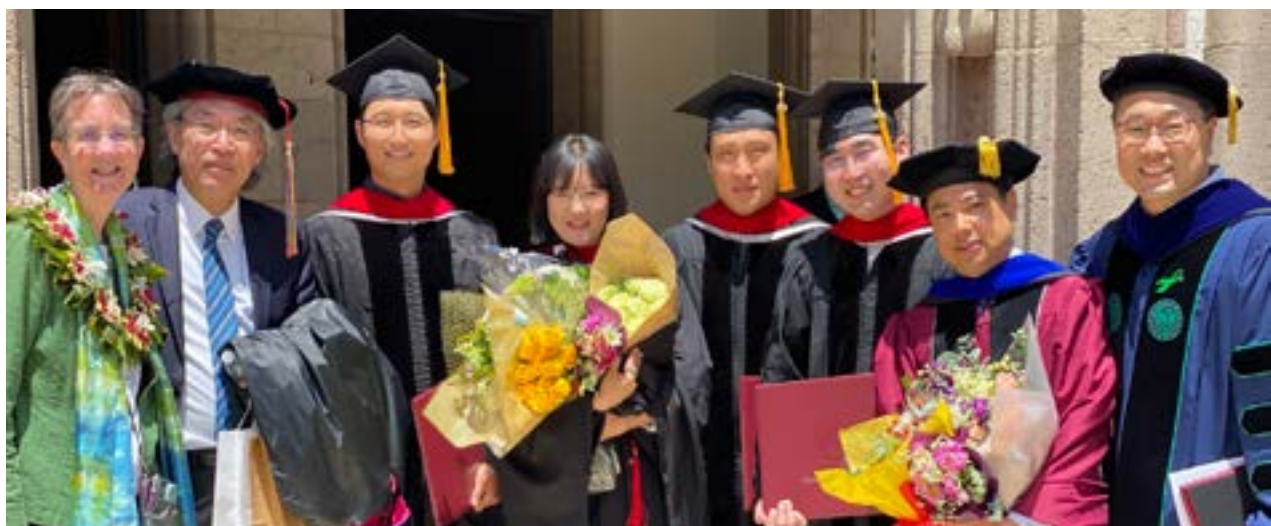
그랜트 하기야 클레어몬트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리더십과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인재들”이라며, “여러분이 받은 신학 교육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올해 졸업식에는 총 13명의 한인 졸업생이 참석하였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친 황신, 박윤준, 가희재, 이종철, 크리스티나 리 졸업생은 교회와 신학계에 혁신과 변화를 불러올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철학박사 과정을 마친 우재하, 김병일, 박성환, 송민환 졸업생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임요한, 정선영, 김예은, 크리스틴 마 졸업생은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할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CST에서 체득한 연민, 정의, 소속감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인 학생들이 더욱 돋보였다. 최우수 졸업생이 수상하는 President's Awards for Academic Excellence를 이종철(목회학 박사), 송민환(철학 박사), 우재하(철학 박사), 박성환(철학 박사)박사가 수상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교 감독회장상은 황신(목회학 박사),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교 교육국 총무상은 가희재(목회학 박사), 박윤준(목회학 박사)이 수상했다. 한인 동창회 상은 임요한(목회학 석사)과 김예은(목회학 석사)이 수상했다. 또한 임요한은 Ralph and Muriel Roberts Award in Youth Ministry 상을 받았고, 김예은은 Hoyt Hickman Award for Outstanding Liturgical Scholarship and Practice과 CST 커뮤니티에 예술적 기여를 한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Jack Coogan Award for the Creative Use of the Arts in the Life of the CST Community을 받았다. 크리스틴 마는 음악, 예배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The Fellowship Seminarian Award을 받았다.

CST를 졸업한 강신욱 목사는 올해 졸업식에서 우수 동문상을 받았다. 이 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CST의 핵심 가치인 연민, 정의, 소속감을 실천하는 동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강신욱 목사는 1973년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CST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는 UCLA에서 의예과 과정을 마치고 1994년 Loma Linda 의과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은퇴하였고 현재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 상세한 내용 참고)

CST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신학 교육의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연민과 정의와 소속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교회, 선교지, 비영리단체,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가치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24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학생회, 졸업 및 종강예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한인학생회(회장 임요한, 부회장 김예은)는 5월 20일(월) 오후 7시, LA 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이창민)에서 졸업 및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재학생과 졸업생과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하였다.

예배에는 CST의 많은 한인 교수들이 함께했다. 김남중 교수(부학장,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학과장)는 “온전한 영성 형성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졸업생들에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따뜻함과 공감을 가지고 사회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 날 김수정 교수(구약학)가 졸업생과 재학생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고, 이어서 이경식 교수(국제협력 부총장)와 김남중 교수가 성찬을 공동 집례하였다.

이번 예배를 위해 CST 동문들의 아낌없는 후원도 있었다. 이창민 목사(LA 연합감리교회)는 예배에 참석한 35명의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했고, 이석부 목사(로스펠리스 연합감리교회)와 이태훈 목사(밸리주하나교회)는 한인학생회 활동을 격려하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예배 후 학생들은 소정의 선물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2023-2024 한인학생회 회장으로 수고한 임요한 졸업생은 “학업과 신앙생활을 함께해온 동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업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신학 교육을 받는 곳으로, 한인학생회는 한인 학생들의 학업과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동체다. 13명의 졸업생들은 각자의 소명을 따라 교회와 선교지,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헌신할 예정이다.



강신욱 목사, 2024년 클레어몬트 우수 동문상 수상



강신욱牧사는 2024년 5월 21일 졸업식에서 우수 동문상(Distinguished Alum Award)을 수상했다. 강 목사는 1986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에 유학생으로 입학하여 목회학 석사(M.Div.)학위를 수여한 후, 미연합감리교회(UMC)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후, 1998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중심에 생수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의사로 부름을 받아 UCLA 의예과와 Loma Linda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5세에 내과 의사가 되었다. 그는 21년간 목회하면서 말씀과 의술로 많은 이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왔다.

그는 2019년에 교회 목회를 은퇴한 후, 여전히 의사로서 의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25개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나에는 학교와 교회를 설립해 고아와 미망인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4개 마을에 생수 공급을 위한 우물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대형 건물을 매입하여 노숙자를 돕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시한부 진단을 받은 이들이 모여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강신욱 목사의 겸손한 삶은 마태복음 6:1~4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적 도움 없이 학업을 이어간 경험은 그가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절대 늦지 않았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이러한 경험과 헌신은 장학금을 수여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 외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날엔 주린 배를 물로 채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절은 유학을 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적응하기 힘든 외국 땅에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저는 학업에 열정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신욱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은 그의 신념과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다. 강 목사의 이러한 선행은 CST 공동체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써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교내 소식

2024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M.Div. 과정 김예은 전도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에 M.Div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김예은 전도사입니다. 길고도 짧았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유학을 결심하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의 공부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웠고, 유학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은 유학의 시간 동안 섬세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유학의 시간 동안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홀로 생활하는 타지에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좋은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에 다양한 시각으로 신학에 대해 배웠으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학우들과 질문하고 대화하며 내가 어떻게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가며, 교회가 어떻게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지식적 배움과 동시에 교수님들의 삶에 태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움에 대해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제가 예배학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좋은 예배학 교수님도 만나 제가 깊이 고민하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제 생각들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각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예배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유학의 3년 동안 다양한 과목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며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클레어몬트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고민하고, 공동체를 이끌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저의 3년을 돌아보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늘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유학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으며, 앞으로도 이 은혜의 기억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곁에서 따스하게 응원해주고 도전을 주었던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소감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내 소식

2024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M.Div. 과정 임요한 전도사)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클레어몬트 M.Div 과정을 졸업한 임요한 전도사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학문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자 목회자로서 크게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민, 정의, 소속감이라는 학교의 핵심 가치를 삶 속에서 체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민의 가치를 배우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수업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또한 타지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주변인이었지만, 클레어몬트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웃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연민과 도움의 가치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실습수업의 하나로 사역했던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의 푸드뱅크 봉사 경험은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였습니다. 음식을 받고 환하게 웃던 브라질 가족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정의의 이상 역시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클레어몬트의 수업은 연민의 마음을 품고 차별받는 약자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클레어몬트의 교수님들, 학교 관계자, 그리고 스태프들로부터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헌신 속에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어몬트에서의 경험은 소속감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커뮤니티 라이프 부서에서 일하며 교수님들과 학우들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학교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티타임이나 학교 행사에서 “우리는 CST입니다!”라고 함께 외칠 때, 우리가 CST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환영받고, 지지받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신학 공부와 제 안의 변화를 돌아보니 감개무량합니다. 한 인간으로, 그리고 미래의 종교 지도자로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열정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한 동기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클레어몬트에서 체득한 연민, 정의, 소속감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학교에서의 배움을 발판 삼아 긍휼과 정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3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안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교내 소식

2024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Ph.D.과정 박성환 목사)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클레어몬트 철학박사 과정을 졸업한 박성환 목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도전,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길고 어려웠던 학업의 여정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큰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한 후 처음 몇 년은 제 계획보다 모든 것이 더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는 무엇 하나 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좌절감과 무기력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7월에 생각지도 못하게 Cal-PAC 연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어 목회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를 박사과정을 그만둘 수 있는 좋은 구실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오히려 목회를 통해 생활이 안정되니, 학업에 대한 부담감도 줄고, 논문의 진도도 더 잘나가게 되어,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의 과정과 유학 인생을 되돌아보며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고, 내가 바라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학문적 여정을 통해 신약 성경을 더욱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업의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 7월 1일부로 새로운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내 소식

2024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Ph.D. 과정 송민환 목사)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클레몬트 철학박사 과정을 졸업한 송민환 목사입니다. 박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도착한 클레어몬트에서 첫날, 가장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은 8월의 작열한 태양과 뜨거운 햇빛, 숨 막히는 건조함 속에 나무와 풀이 말라가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긴 학업 과정을 시작하며 느낀 기대와 부담감, 달라진 생활 환경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란한 마음에,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날씨를 경험하니, 녹록하지 않은 앞으로의 여정을 예견하는 것 같아 우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감문을 쓰기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교를 통해 만난 수많은 인연과 그 만남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되돌아보니, 그러한 우려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날씨에 대한 불만은 더욱 그랬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하면서 저의 개인적, 학문적,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다양성에 대한 전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원화가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타인을 잘 이해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클레어몬트 신학교가 위치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학교의 가치 아래 모인 다채로운 배경의 학생, 교수, 직원들과의 교류는 교실 안팎, 삶과 학문, 이론과 실천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배움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삶의 양태와 가치관, 믿음,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배운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Once you have seen something, you can’t unsee it (한 번 본 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사람과 사회,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저의 자세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함과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여정 동안, 특별히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때에, 도움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20일 기준-

강신욱 목사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목사)

박성숙 사모

한상훈 회장

이삼휘 장로

이경식 부총장

김웅민 목사

임용빈 장로

이병준 장로

이한슬, 이레이첼 박사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총액(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20일 기준): **\$180,382**

- KEF 잔액(1990.03. - 2024.06.):	\$2,191,654
- KLS 잔액(2018.10. - 2024.06.):	\$611,084
- Annual Fund 합계(2024.03. - 2024.06.):	\$40,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방법 안내

* 수표: 수표는 클레어몬트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표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주소로 보내주시고, 메모란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Fund'임을 명시해 주세요.

* 온라인: 온라인 기부 링크는 <http://cst.edu/give/donate/>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금선택” 아래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항목이 있습니다.

(한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외에 학교를 위한 기부를 원하시면 “기금선택”에 “Annual Fund”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계좌 이체(EFT)를 원하시거나 증권 기증을 원하시면 slee@cst.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